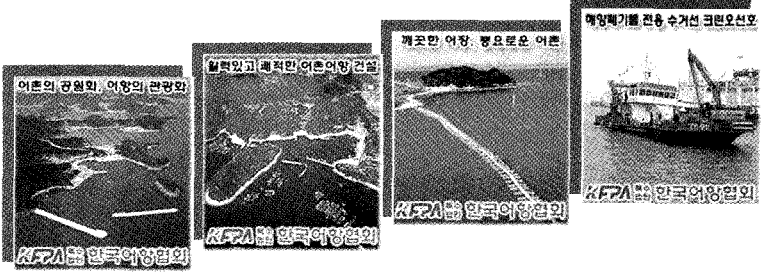


'나만의 우표' 4종 제작

한국어항협회는 어항과 협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만의 우표'를 제작, 협회 발송 주요우편물에 사용한다. 이번에 제작된 '나만의 우표'는 총 4종류로 2종은 어항 전경이 든 이미지에 "어촌의 공원화, 어항의 관광화", "활력있고 쾌적한 어촌 어항 건설"이라는 표어가 들어가 있다. 1종은 해양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깨끗한 어장, 풍요로운 어촌"이라는 표어가 든 바다 이미지이다. 나머지 1종은 협회가 운영하는 해양폐기물 전용 수거선 크린오션호의 전경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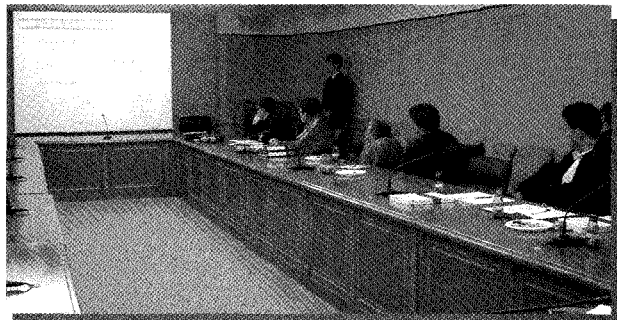


고 천용기씨 추념식에 참석

한국어항협회 배평암 회장은 지난 3월31일(수)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거행된 어업감독 공무원 고 천용기씨 9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불법어선을 단속하다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천용기 씨의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고 천용기 씨는 어업지도선 감독 공무원으로 1995년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중 어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수산청 생산국장이었던 배평암 회장은 시신 수습과 장례준비 등을 맡았으며 이후 수산인들의 뜻을 모아 고 천용기씨의 흉상을 제작하고 지도선 승선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주도, 현재까지 지도선 직원들과 남다른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협회-해양폐기물 연구과제 용역

한국어항협회는 2004년 해양수산부 연구용역과제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VI), 연근해 주요어장에 대한 해양 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II)"에 참여한다. 협회가 담당하게된 수행 과제는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설문조사에 의한 해양 폐기물 발생량 추정조사', '침체어망 수거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이다. 사진은 4월 9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실시된 착수 보고회.



해양 폐기물 수거 처리 업무 본격 착수

한국어항협회는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로부터 2004년도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수임,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87억원 중 35억 원을 배정받은 한국어항협회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9억 여원, 장비단가 책정 및 사업 설계비에 2억여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침적폐기물 수거와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실시할 예상 주요 어장은 작년부터 실시해오던 부산 북

도-남형제 주변 수역,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 수역과 올해 처음 실시되는 남해 미조면 앞 주변 수역 등이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국고 1억6천여만원과 지방비 4천여만원을 배정, 부산 다대포항·대변항과 보령 대천항, 목포 목포항, 여수 국동항·돌산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어항협회는 현재 사전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5월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